논어 15편 위령공 1장 · 원문·풀이

衛靈公問陳於孔子。孔子對曰：「俎豆之事，則嘗聞之矣；軍旅之事，未之學也。」明日遂行。在陳絕糧。從者病，莫能興。子路慍見曰：「君子亦有窮乎？」子曰：「君子固窮，小人窮斯濫矣。」

독음 · 위령공문진어공자 공자대왈 조두지사 즉상문지의 군려지사 미지학야 명일수행 재진절량 종자병 막능흥 자로온현왈 군자역유궁호 자왈 군자고궁 소인궁사람의

쉬운 풀이(요약) · 전쟁을 묻는 위령공에게 예만 배웠다고 답하고 떠났다. 진나라에서 식량이 끊기자 군자는 곤궁해도 도를 지키지만 소인은 한계를 넘는다고 했다.

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글자 뜻과 음(대표 훈음 ·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

衛 막을 위 위 / 靈 신령 령 령 / 公 공변될 공 공 / 問 물을 문 문

陳 늘어놓을 진 진 / 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 / 孔 구멍 공 공 / 子 아들 자

對 마주볼 대 대 / 曰 가로 왈 / 俎 도마 조 조 / 豆 콩 두 두

之 갈 지 / 事 일 사 사 / 則 곧 즉 / 嘗 맛볼 상 상

聞 들을 문 문 / 矣 어조사 의 / 軍 군사 군 군 / 旅 군사 려 려

未 아닐 미 미 / 學 배울 학 / 也 어조사 야 / 明 밝을 명 명

日 날 일 일 / 遂 사무칠 수 수 / 行 다닐 행 행 / 在 있을 재 재

絕 끊을 절 / 糧 양식 량 량 / 從 좇을 종 종 / 者 놈 자

病 병 병 병 / 莫 없을 막 막 / 能 능할 능 능 / 興 일 흥 흥

路 길 로 로 / 慍 성낼 온 / 見 볼 견 견 / 君 임금 군

亦 또 역 / 有 있을 유 / 窮 다할 궁 궁 / 乎 어조사 호

固 굳을 고 고 / 小 작을 소 소 / 人 사람 인 / 斯 이 사 사

濫 퍼질 람 람

저본: 위키문헌 論語 ·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